

광주시 역대 최대규모 간부급 인사 곧 단행

2급 1명 등 국장급 6명·4급 18명 승진 행정부시장 관심 ... 행자부와 막판 조율중

광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간부급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년 연초에 실시했던 정기인사를 연말 내에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 4급 이상 인사예고를, 26일에는 승진, 30일에는 전보인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5급 이하 인사는 내년 1월 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과장급 이상 승진 규모는 2급(시의회 사무처장) 1명과 3급(국장) 5명, 4급(과장) 18명 등 모두 24명 정도로 예상된다.

3급 승진은 행정직 4명과 기술직 1명을, 4급 승진은 행정직이 최소 10명, 기술직은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용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현 3급 국장 중 1명이 2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다만 시의회 사무처장의 경우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인 상황으로, 시의회에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참급 국장들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광주 동구 부구청장과 북구, 광산구 부구청장 등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4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동구 부구청장의 경우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노회용 동구청장이 구속 기소돼 구청장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누가 후임을 맡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번 3급 인사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준국장급과 오랜기간 4급 자리에 머물러 온 간부 등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승진인원이 많긴 하지만 조직의 안정 등을 감안해 연공서열 순으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장현 시장의 핵심 보좌진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의 승진 및 교체설 등이 나오면서 후임을 놓고 여러 간부들의 이목도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행정부시장 인사도 관심이다. 시는 오희국 행정부시장이 이달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후임 부시장 인사를 놓고도 행정자치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행정부시장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문인 정부청사관리소장과 황서종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추천했으나, 광주시는 김성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관리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영광이 고향인 문인 소장은 광주일보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광주통'이다. 황서종 국장은 강진 출신으로 동신고-서울대 외교학과-행정고시(31회)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며, 온화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 출신인 김성환 관리관은 송일고-전남대-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주로 중앙 행정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 1990년부터 4년간 전남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간부급의 승진 요인이 많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격인사라는 명분으로, 외부의 힘이 개입돼 능력이나 서열 등을 배제한 인사가 진행된다면 새해 벽두부터 심각한 인사 후유증이 시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산하기관 인사 놓고 갈등 골 깊어가는 시-시의회

광주시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산하기관장의 잇단 낙하산, 측근·보은 인사를 지적하며 산하기관 임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했는데도 시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인사를 강행하면서 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시의회는 18일로 예정됐던 윤장현 시장과 시청 간부들이 함께 하는 송년 만찬도 '보이콧'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무처장 후보 5명을 상대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해 윤 시장에게 추천했다.

두 명의 추천 후보는 윤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문화계 지지를 이끌었던 김윤기 전 송원미술관장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인 김중률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이른바 이번주 내에 신임 사무처장을 낙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문화재단 사무처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3명, 시장 추천 2명, 재단이사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시의회 추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의 위원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는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은 측근 임명을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태"이라며 "시의회 추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시의회는 앞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선임 등을 놓고 위원을 추천했지만, 3명의 위원으로는 '정실인사'를 뒤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청문 회'를 주장하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반발해왔다.

문제는 시의회가 다른 산하기관 임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뿐 아니라 이미 (재)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장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임용에 필요한 의회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내년 1월중 진행될 교통문화연수원장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가 문화재단처럼 다른 산하기관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보인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기관장협 24일 출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오는 24일 출범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협의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강인규 나주시장 등 지역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역유치 및 일자리창출 노력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소통활동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관장 회의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기관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공동 노력 ▲우수 지역인재 육성 및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역유치 및 일자리창출 노력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소통활동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관장 회의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혁신도시 발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미국과 쿠바 간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가 발표된 17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 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美-쿠바 53년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

美,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 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 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남지사 19일 방중 출국

이낙연 전남지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지린성의 장춘(長春)과 연변(延邊)을 방문, 지린성과 연변 조선족 및 대학 등과의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협력 교류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이 지사는 첫 날인 19일 장차오량(蔣超良) 지린성 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전남과 우호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연변을 방문해 박영호(朴永浩) 연변대 총장과 회담을 갖고 연변대학교와 전남권 대학 간 학술교류와 유학생 교류 문제 등을 협의한다.

이경호(李景浩) 연변조선족 자치주 주장(州長)과도 만나 조선족 동포사회의 현황을 듣고 전남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며, 특히 연변지역을 통해 남북 협력 교류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이 지사의 지린성 방문에는 연변대 명예교수인 동훈 전 통일부 차관이 현지에서 합류, 동북 3성의 동포사회와 남북 협력사업 등에 관해 조언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 모집 인원** ▶ 30명
-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입학상담문의 **GoChina** www.g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달리